



20돌 맞은 코너스톤교회 '감동의 콘서트' = 마음에 감동과 주님의 은혜를 선사하는 색다른 찬양콘서트 '셀레브레이션(CELEBRATION) 2013'이 10일 오후 세리토스퍼포밍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문화사역에 힘쓰는 코너스톤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웃들에게 2시간 30분 동안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 이 행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교회 전교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은 오프닝 공연 장면.(관계기사 10면)

남가주교협, '광복절 연합감사예배' 드린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 유철 목사)가 광복절 68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연합감사예배를 드린다. 감사예배는 사회 박효우 목사(수석부회장), 대표기도 홍순원 장로(남가주장로회 회장), 설교 진유철 목사, 특별기도, 찬사 김성훈 목사(미주광복회 고문)와 신연성 총영사, 축도 홍

영환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회 회장)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특별히 광복절의 은혜를 되새기며 교협 부회장들의 인도로 '미국과 한인사회와 교회', '조국과 세계선교'를 위해 합심기도를 할 예정이다. 한편 남가주교협과 오렌지카운티 교협은 차세대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을 장학금으로 선발해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뜻을 모은 가운데, 오는 18일 오후 5시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주최측은 10일까지 장학금 접수와 장학금 마련을 위해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뜻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나성영락 4대 감경진 담임목사 위임 "최선 다해 사랑할것"

나성영락교회가 지난 1월 중순 제 4대 담임으로 확정된 김경진 목사 위임식을 11일(일) 오후 4시에 열었다. 위임식은 지난달 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 임시노회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위임식 승인에 따른 절차로 열렸다. 이날 담사에서 김경진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 5개월의 약혼기간 동안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결혼에 이르게 됐다. 나성영락교회가 마지막 목회자가 되길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과 행복한 목회 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은퇴 후에 어떤 목회자로 남으면 좋을까 생각해봤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는 '그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이었다. 정성과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목사가 돼

여러분을 사랑하겠다. 또한 영적인 멘토에 같급해 있었는데 박희민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날 위임식은 1부 박희민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가운데 강진웅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전 서노회장), 말씀 노진걸 목사(해외한인장로회 부총회장)로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위임식에서는 집례 박희민 목사(위임국장, 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장), 경과보고, 서약, 기도, 공포 및 위임패 증정, 성경 및 헌법 증정 박희민 목사, 권면 김인수 목사(미주장신대 전 총장), 찬사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축하영상 서울 익수스교회, 선물증정, 답사, 감사패증정, 광고,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9개월째 北 억류' 케네스 배 건강악화로 특별교회소서 병원으로 이송설

"주북 스웨덴대사로부터 들었다" 가족들 밝혀

북한에 9개월째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40)가 최근 건강 악화로 특별교회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시애틀 퀘스트교회(담임 조유진 목사)에서 배 선교사의 무사 귀환을 위한 촛불 기도모임에서 배씨의 여동생 테리 정씨는 "주북한 스웨덴대사로부터 이 사실을 전

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평양을 방문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으로부터 오빠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으로 옮겨진 소식을 들었다"며 "당뇨와 심장질환, 허리통증 등 병세가 날로 깊어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배 선교사의 가족들은 청원서

서명 인원 수를 바탕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추진을 촉구하는 공식 청원을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관광객들을 데리고 함경북도 라진으로 들어갔다가 억류된 배씨는 지난 4월 말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김 브라이언 기자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관과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차세대 리더 장학금 수여식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작된 장학금 사역에 많은 교회와 업체와 개인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수여식을 하게 됩니다. 모금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여식을 가행하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과 기도를 바랍니다.

• 일시 : 2013년 8월 18일 오후 5시
 • 장소 :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주소 :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전화번호 : (323) 913-4499 / www.lagfc.com



남가주교협에서 받은 장학기금 총 \$41,700

• 돌로스선교회 (황의정목사)	\$1,000	• 옴므학원 (박종봉집사)	\$500
• 나성동산교회 (한기형목사)	\$500	• 매진나인브릿지 (최홍준집사, 정상현집사)	\$1,000
•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목사)	\$5,000	• 시온서플라이 (최홍진장로)	\$1,000
• 한길교회 (노진준목사)	\$1,000	• Vision21 (Angie Kim)	\$500
• L.A.한인침례교회 (박성근목사)	\$2,000	• 장영순권사 (나성순복음교회)	\$500
• 남가주새소망교회 (김성민목사)	\$1,000	• 나성순복음교회 에녹회	\$500
• 안디옥장로교회 (지윤성목사)	\$1,500	• 크리스천헤럴드 (윤우경사장)	\$1,000
• 주님세운교회 (박성규목사)	\$2,000	• 나성영락교회 (김경진목사)	\$1,000
• 미주평안교회 (송정명목사)	\$1,000	• 대흥장로교회 (권영국목사)	\$500
• 풍성한교회 (박효우목사)	\$2,000	• South Hills Animal Hospital (손수웅장로)	\$500
• Little Bean Cafe (헬렌박)	\$300	• 충현선교회 (민종기목사)	\$2,000
• 거주장의사 (정영목목사)	\$200	•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목사)	\$5,000
• 옥스포드호텔 (김영희권사)	\$5,000	• 크리스천헬스케어 (스티븐정)	\$700
• 파사데나인 (최봉제집사)	\$500	• 동양선교회 (박형은목사)	\$1,000
• Free Loader (정미숙집사)	\$2,000	• 웨스턴병원 (허준집사)	\$1,000

O.C. 교협에서 받은 장학기금 총 \$40,000

• 은혜한인교회 (한기홍목사)	\$10,000	• 크리스천헤럴드 (윤우경사장)	\$1,000
• 나침반교회 (민경엽목사)	\$7,000	• 남가주사랑의교회 (노창수목사)	\$10,000
• 크리스천헤럴드 축구대회 장학금	\$3,000	• New PNS한인록 (윤우경집사)	\$2,800
• 좋은소식교회 (이호우목사)	\$3,000	• 디사이플교회(고현종목사)	\$1,000
• 갈릴리새생명교회 (민승기목사)	\$2,000	• 열반인브릿지교회 (윤덕근목사)	\$500
• 충만교회 (김기동목사)	\$1,200		
• OC영락교회 (김경섭목사)	\$500		

후원자 명단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거주선교” 급부상

21세기 ‘틈새전략’ 비거주선교의 ‘빛과 그림자’

전통적으로 선교사는 본국을 떠나 선교 현지에 체류하며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했다. 하지만 선교 활동이 제한적이며 선교사가 장기 체류할 수 없는 선교지에서도 전략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비거주선교’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중국어문선교회는 격월간 소식지 ‘중국을 주제로’ 최신호에서 ‘틈새전략, 중국 비거주선교’라는 특집 기사를 다뤘다. 본지는 이 내용을 인용해 비거주선교 및 비거주선교사에 대한 개념과 방향 그리고 한계와 실제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註)>

중MVP선교회 본부장 한수아 선교사는 ‘비거주선교, 그 기회와 한계’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21세기는 선교지에 직접 접근이 어려워진 반면 선교가 자유로운 국가로 이동하는 난민이 주자는 증가하는 등 전략적 비거주선교가 과거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통적으로 선교의 지리적 요소가 강조돼 온 이유로 그는 “현대선교의 시작이 유럽의 세계화로 발견과 일치했기 때문”이라며 “그 시기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화 되어 있었고 선교는 대양을 건너 먼 나라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탈프 원터가 선교는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교 개념에 전환이 이뤄졌다. 한 선교사는 “선교는 결국 거주, 비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어, 문화적 경계를 뛰어 넘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으로 “특히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장기 체류하기 어렵고, 사역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인해 비거주선교의 개념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비거주선교는 선교지의 제약 조건 뿐 아니라 추방 등 선교사 개인의 이유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한 선교지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통틀어 ‘비거주선교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선교사는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개념 확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거주선교와 비거주선교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끔 선교지를 방문해서 하는 선교활동을 비거주선교라고 부를 수 있어도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모두 비거주선교

사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선교표지지역이나 종족이 분명하고, 선교 대상에 대한 지식, 언어능력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비거주선교가 선교하는 사람의 주된 활동이 되어야 비거주선교사라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선교지에 반드시 가지 않더라도 국내나 선교지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특정 민족, 이주자들을 제자 삼는 일을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비거

주선교사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선교와 비거주선교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선교도 특정 지역이나 종족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선교지에 대한 지식과 언어능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한다면 비거주선교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목표 없이 단회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단기선교는 비거주선교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그는 말했다.

한 선교사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국수적 민족주의 등으로 선교사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가 30여개 국, 선교사의 추방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120여 개 국(한국위기관리재단 추산)이라며 “기독교 배타지역이 늘면서 자연히 비거주 사역이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그는 2010년 국제이주자는 무려 2억1400만 명에 이른다고 “선교지에서 비교적 선교가 자유로운 다른 국가로 이동한 미전도 종족 이주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국가, 지역, 거점도시는 비거주선교의 전략적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역시 비

거주선교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어디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교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며 “선교지와 거주지 간 이동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고, 정보의 교류와 네트워킹의 급속한 발전으로 비거주선교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는 선교사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성이나 방송선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최근에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거주선교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거주선교가 대두되는 또 다른 이유로 그는 신(新) 노마드(nomad, 유목민) 시대의 도래를 들었다. “정보화, 세계화가 만든 고독한 자유, 테이크아웃 음식, 모바일 기기를 선호하는 신노마드족은 평생 직장이라는 정착민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여러 직장을 거쳐간다”며 “이런 시대적 현상은 비거주선교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10년~20년 후 선교의 주역인 10대, 20대도 신노마드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자란 만큼 비거주선교는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예상했다. “향후 세대들은 한 선교지에 오래 머물면서 사역하기 보다 자기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선교지를 몇 개월, 몇 년 식으로 찾아 다닐 것”이라며 “그들은 이런 유동적 선교 패러다임을 훨씬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세대로 비거주선교(Non-residential Mission) 개념에서 멀티거주선교

(Multi-residential Mission)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선교사는 한국교회가 바로 비거주선교의 수혜자라며 “한국에서 기독교의 전파가 금지되어 있을 때 인근의 전략적 지역인 만주지역에서 존 로스(John Ross, 1842-1915) 선교사 일행의 비거주선교 결과로 교회가 개척됐다”고 주장했다. 존 로스 선교사 일행은 만주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 한국인 소매무역상(이응찬, 서상륜, 백홍

때문에 비거주 사역을 선택하는 등 희생을 피하려는 행태로 흐를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선교사만 선교 현장에 거주하고 다른 가족은 생활, 교육환경이 좋은 타 지역에 두고 사역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역과 거주가 자유로워져도 편의주의적으로 비거주를 선택한 사람은 여전히 비거주 사역을 고집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거주선교의 또 다른 한계는 열매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 변방선교는 주변 국가 혹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는 식으로 선교 사역을 많이 한다”며 “비거주 사역으로 선교현장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은 현장 거주선교사들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때로는 거주선교사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결과도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한 선교사는 “잠시 방문하는 경우 자신의 사역 결과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다”며 “비거주선교사는 사역할 그 순간 보이는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거주선교사나 현지인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고 협력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선교사는 신학적, 선교학적으로 ‘과연 함께 살지 않고 선교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도 던지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며 본을 보여주시 것처럼 선교사도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한다”며 “결국 비거주선교는 중요한 전략적 대안이나 거주선교를 대신할 수 없는 보완적 사역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거주선교가 제자삼기, 교회개혁 같은 장기적이고 삶의 공유가 필요한 사역보다 리서치, 비즈니스, 훈련, 강의, 의료, 문서, 방송 등 단기간 효과를 보거나 꼭 삶을 함께 할 필요가 없는 사역분야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 선교사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라는 글로벌 선교의 확산은 비거주사역을 더 확산시킬뿐 아니라 선교편의주의에 대한 유혹도 증가시킬 것”이라며 거주, 비거주에 매이지 말고 오직 선교하시는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선교할 것을 당부했다.



선교사 활동 금지 국가 ‘증가’

교통·통신 ‘발달’이 비거주선교 가능케 해

신 노마드 시대...선교사들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역

단순한 편의성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돼...철저한 네트워킹이 성패 좌우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내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었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 \$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세상의 중심에서 신학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갑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학사(B.A.), 교역학석사(M.Div.) 과정

가을학기 개강일 : 8월 26일(월)
M.Div. 온라인 강의 전격 개설 (2013년 가을학기부터)
(본교는 학점제로 운영되며, 총 98학점 중 48학점을 온라인 강의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ESL 과정

“중부한 교육 경험을 가진 현지인 전문 강사들과 각 과정별 담당 교수제를 통한 지도, 원어민 대화 상대자 배정을 통해 최고의 실용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Level Test 및 설명회 : 8월 19~22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오후 3시
가을학기 : 9월 2일(월) ~ 12월 13일(금) (총 15주)
학비 : 학기당 \$2,200 (1년 3학기제)

입학문의

입학 및 등록 : 본교 홈페이지 (www.ptsa.edu) ‘입학정보실’ 참조.
입학 관련 문의 : 미국 Tel. 1-562.926.1023, Ext. 300 / E-mail: office@ptsa.edu
한국 Tel. 010-6612-1165 박정환 목사

2013년 가을학기 공개 강연 및 사경회 일정

날짜	시간	강사	강연 주제
9월 11일(수)	오전 11:00 ~ 오후 12:30	강요셉 박사 • Retired Missionary Professor (Zomba, Malawi & St. Petersburg, Russia) •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S.T.D.	먼저 힘센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 현대 사회 속 악령 문화에 대해 말하다
9월 23일(월)	오전 11:00 ~ 오후 12:30	정성욱 박사 • Denver Seminary, 조직신학 교수 • University of Oxford, D.Phil.	삼위일체의 체현 : 전자구적 관점에서 본 삼위일체 신학과 영성
10월 3일(목)	오전 11:00 ~ 오후 12:30	우중학 박사 •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 Yale University, Ph.D.	그리스도인이여, 과학을 풀어라
10월 29일(화)	미정	사회 : 강우중 교수 (본교 교수) • 발제 1 : 미정 • 발제 2 : 미정	교회, 동성애에 대해 말하다 : 발제 1 : 동성애 실태 및 일반의 이해 발제 2 : 동성애 확산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대안 제시 / 질의응답
11월 5일(화)	오전 9:30 ~ 11:00 오후 1:30 ~ 3:00 저녁 7:00 ~ 8:30	김규동 목사 • 일본 요한복음교회 담임 • 일본에서 44개 교회 개척 • 현재 3,000명 출석하는 일본 최대 교회로 성장시킴	미정

※ 본교가 가을학기에 제공하는 강연과 사경회는 모두 공개로 진행됩니다. 본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참석을 희망하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석을 희망하는 분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SEVIS 1-20발령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본교는 미국 성서대학교협의회(SABA)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S) 준회원이며 해외한국인교회(KKCA) 총회 직영 신학교로서 본교에서 2년 이상 수학 후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 예정장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KPCA 고대선서 목사 인수 후 한국 예정장소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오바마 대통령, 50년 전 킹 목사가 섰던 그곳에서 연설



50년 전 마틴 루터 킹 목사(왼쪽)가 연설했던 곳에서, 오는 2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이 '소수 인종의 자유'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백악관에 예고 없이 나타나 "트레이번 마틴이 35년 전 나였을 수도 있다"며 미국 내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점을 언급, 대통령 이전에 흑인 남자로서 실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많은 경험과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역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인종차별 문제와 그에 따른 흑인들의 고통을 이해해 달라고 미국인들에게 촉구했다. 이어 "미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 평결의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총기 관련 법과 위협을 느낄 때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정당방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2008년 대선 과정에서 인종 문제를 언급한 이래, 가장 포괄적이며 개인적이며 흑인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사실을 통해 "이 나라가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진 것은 위대하지만, 여전히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이 달 말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킹 목사가 참여한 '워싱턴 대행진' 이후 반세기 동안 벌어진 일들에 관한 내용으로 꾸며진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정한나 기자

오는 28일 '소수 인종의 자유' 언급 예정... '짐머만 사건' 등 동기 된 듯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오는 28일, 50년 전 흑인인권운동가 고(故)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사후를 토해냈던 자리에 서서 '소수 인종의 자유'를 외친다.

1963년 8월 28일 오후 3시,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행진에 참가했던 킹 목사는 이날 미국 흑인인권운동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연설을 남겼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일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대행진' 연설이 바로 그것. 말미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때까지"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다짐도 담고 있는 이 연설은, 흑인과 백인간 평등과 공존에 대한 요구였고,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발달한 국가' 혹은 '슈퍼 파워'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음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를 조장해온 미국이란 나라에 경종을 울린 외침이었다.

당시 킹 목사는 100년 전 해방 선언으로 흑인노예제 폐지를 이뤄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기린 워싱턴D.C. 링컨 기념관 광장에 모인 약 30만 군중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강조하면서 흑인과 백인이 모두 형제·자매로 함께하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킹 목사의 연설은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 인권운동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가장 크게 공헌했다

는 평을 받고 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링컨 대통령과 킹 목사의 뒤를 이어 인종 문제를 극복하고, 미 건국 232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배출됐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흑인에 대한 공공연한 격리와 시민권 제한이 당연시됐던 점을 생각하면, 미국 사회는 유색인종 대통령을 최고 지도자로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년 전 흑인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 내 흑인들의 지위 향상은 물론 아시아계 이주민 등 기타 소수 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팽배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인권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을까. 최근 불거진 짐머만 사건만 해도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 앵글로색슨계 백인 개신교인)가 주류사회를 형성하며 이끌어온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간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이후에도 국내 인종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다.

하지만 최근 '짐머만' 사건으로 미 전역에 걸쳐 '흑백간' 인종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의 심경을 밝혔다. 인종 문제에 대해 더이상 회피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 반대해 리버티대학교도 소송 중



리버티대학교도 오바마케어에 반대해 소송 중에 있다.

제10항소법원 "인정", 제3항소법원 "부정"에 이어 제4항소법원은 "인정 후 부정"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낙태 조항을 거부하는 기독교 기업 및 단체들의 소송 결과가 미국 내에서도 법원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요지는 개인이 아닌 영리, 비영리 단체들에도 수정헌법의 종교자유 조항이 적용되는가이다.

제4항소법원은 최근 유명 기독교

사학인 리버티대학교가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산아제한 조항을 거부한 것을 인정했다가 이를 만에 급히 철회했다.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이 난 후, 확정 판결문이 약간 수정 보완되는 일은 비밀비재하다. 그러나 그 결과 자체가 상반되게 뒤집어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

리버티대학의 소송은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으로 인해 전 미국

에서 진행되고 있는 약 60여 건의 소송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소송은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보험은 낙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개인들의 보험은 낙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또 "연방대법원이 무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세금으로 규정하고, 의회가 이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세금에 대한 법은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하는데, 오바마케어는 상원에서 발의됐으므로 불법"이라고도 저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4항소법원은 모두 리버티대학에게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리버티대학은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리버티대학은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보험을 의무화할 권리가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소송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LA필그림남성합창단, 대대적 단원 모집중

1993년 이래 LA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LA필그림남성합창단이 대대적으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합창단 관계자는 모집과 관련해 "합창음악을 좋아하는 남성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습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하며 합창지휘는 진정우 박사가 이끌고 있다.

문의: (818) 472-7245(이창덕 단장)

박창민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원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태바 선교후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진절하게 웃음으로 상담에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주일 예배모임 위해 몇 시간 준비하면 충분할까?

[최지호 목사의 예배예수] 설교 준비에 들이는 시간에 비하면...

한 교회의 사무직원이 돌아오는 주일에 사용할 주보를 편집하고 있었다. 늦어도 금요일 아침이나 정오까지라도 마감을 해서 인쇄소로 보내야 하는데, 금요일 오후 3시가 넘어서도 설교의 본문과 제목, 그리고 예배모임 중부를 찬양 선곡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최지호 목사

다행히 부서들에서 보내 준 광고 내용은 정리해 올리긴 했지만, 끝을 내지 못한 담당자는 발을 구르고 있다. 인쇄소로부터 독촉하는 전화도 간간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 어떻게 통화된 목회자는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전화로 불러준다. 그리고 바빠서 전화를 끊겠다고 말한다. 사무직원이 "잠시만요!"라고 외친다. "찬송 선곡하신 건요?"

잠시 적막이 흐르고... 목회자는 "이 곡이면 좋겠다"면서, 주보에 들어갈 두 곡의 찬양 제목을 불러 준다. "찬양과 함께 표기할 장 수는 직접 찾아 보라"는 말과 함께...

이런 모습을 CCTV로 담아 전 교인에게 공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어떤 반응

들이 나올까? 예상해 볼 수 있는 몇몇 의견을 생각해 보자. 어떤 이는 졸속으로 준비된 예배모임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또 어떤 이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 늘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았다고 말할지 모른다.

또 다른 이는 정말 바쁘고 중요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 스스로 위로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이번 한 주간 특별한 경우였다고 이해해 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사실 어설피고 취약해 보이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 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두어 가지 이유를 든다면, 그 중 하나는 예배 준비에 들이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 항목별로 준비

하는 수고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 "주일 예배 설교 준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가? 거의 1주일 내내 준비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절대 목양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거기서 먹고 자면서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나 한 주간 내내 설교 준비만 할 수 있는 목회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형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이 심방이나 상담, 교회의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라면 모를까.

그리고 대다수는 설교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 또는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목양실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많다. 현대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10가지 이상이다.

그러나 그렇게 설교 준비에만 집중한다 해서 예배 준비가 충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좋은 설교는 절대 목양실 안에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 삶의 현장과, 그들과의 만남에서도 준비되어야 한다. 한 교우당 한 주간에 한 번씩은 심방이나 마음을 전하는 전화를 해야 목회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 아닌가(나도 과도하다는 것을 안다)!

주일 예배모임에 참석한 회중에게 어떤 말로 격려하고 예배 안으로 초청할지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행하신 능하신 일을 찬양할 때 회중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대표기도자가 공동체의 신앙고백과 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헌신과 요청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예배 중에 듣게 될 찬양대의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회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사역이 될지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순서를 맡는 이들이 함께 모여 진정 공동체의 변화와 성숙의 기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 외에도 적어도 수십 가지는 더 마음을 주고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 예배 준비를 만만히 보서는 안 된다. 예배 준비를 위한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필연적인 시간이다. 찬송 두 곡 선곡만으로 끝내선 안 되고, 최소 10시간은 설교를 제외한 예배 준비에 사용해야 할 것을 격려하고 싶다.

'시신기증' 정기세미나

소망소사이어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나성동산교회(2525 W James M Wood Blvd, LA)에서 UC어바인 시신기증 프로그램 디렉터인 마크 브룩스(Mark Brooks)와 UCLA 시신기증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인 트레비스 시엠스(Travis Siems)씨를 강사로 초청해 시신기증을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연다.

주최 측은 "지난 5월 세미나를 통해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기증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지만 직접적인 기증으로는 연결되지 않아 보다 자세히 알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소망소사이어티 측은 "지난해 8월 UC어바인 월드 바디 프로그램 답사를 통해 매년 기증 소요량인 150구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게다가 현재 기증되는 시신의 대부분은 백인이며 소수계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자체 연장자 사역을 위한 교육은 물론 시신기증 안내 및 계몽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주최 측은 "무엇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신기증에 대해 문의를 해온 LA지역과 북쪽 인근지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UCLA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의: (562) 977-4580

"지도자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약속 기억해야"

앤디 스탠리 목사, 글로벌리더십서밋에서 강조



앤디 스탠리 목사가 9일 월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의 글로벌리더십서밋에서 강연하고 있다.

"지도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노스포인트미니스트리즈(North Ministries)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앤디 스탠리(Andy Stanley) 목사는 9일 월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의 글로벌리더십서밋(Global Leadership Summit) 강연에서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나 같 것이며 교회를 세우시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도자들에게 이 같이 조언했다.

스탠리 목사는 "범법자들(out-laws)의 집단에 불과했던 1세기 교회가 로마 제국의 거대하고 강력한 박해 아래서도 수많은 이들을 개종 시키며 오늘날 세계 최대의 종교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그 분이 2천 년이 넘는 교회의 활동의 중심이 되어 오셨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잘하든 잘

하지 못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세워 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포함해서, 누구의 죽음도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다양한 교단과 단체들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모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일부"라고 말했다.

스탠리 목사는 또한 지도자들이 이 약속을 가장 기억해야 할 때는 절망 가운데서임을 강조했다. 그는 "바울은 사형장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로마는 멸망하고 기독교는 존속하리라는 것을, 또한 오늘날 로마를 여행하는 이들이 황제들이 묻힌 곳이 아닌 자신이 묻힌 곳을 찾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자신의 목숨이 곧 끝나버리는 것처럼 교회

역시 언제가는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스탠리 목사는 바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했듯, 지도자들 역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이 뜻한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가는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약속 대로 교회를 세우시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스탠리 목사는 미국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명이며, 복음주의 작가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글로벌리더십서밋은 기독교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경적 리더십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빌 하이벨스 목사의 월로우크릭커뮤니티 교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이라크 연쇄 차량 폭발로 150명 사상... '최악의 라마단'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인근지역에서 10일(현지시간) 차량 폭탄 테러로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이번 공격은 이슬람 신도들의 라마단을 종료하는 행사인 '이드 알 피트르'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많은 인파가 모인 변화가에서 발생해 피해가 컸다.

올해 이라크에서 열린 라마단 기간 중 수백명이 숨겨 2007년 이후 '최악의 라마단'으로 기록됐다.

지난 4월부터 심해진 테러는 폭력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7월 한 달 동안 무려 1천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공격을 감행한 세력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민들은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의 소행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에서는 소수계 이슬람 세력인 수니파가 시아파 주도의 정부에 불만을 품고 종파 간의 폭력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초스피드 다이어트 **미용침** · 얼굴축소 (안면지방제거)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에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50 한달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하트오리)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2013년도 실버드림대학 가을학기 개강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19:32)

수강 신청 안내

1. **학과 수업 내용** * 개설과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활영어1 / 컴퓨터 / 건강체조 / 서예 / 바둑 / 노래교실 / 공예 / 뜨개질 / 성경영화 / 월별특강

* 컴퓨터 과목 신청시 컴퓨터는 개인이 별도 구입해야 합니다. (노트북 \$350~\$500 예상)
* 공예과목 신청시 일정 금액의 재료비가 있습니다.

2. 학기 일정 안내

- 1) 기간 : 8월22일~11월 21일(14주간) 매주 목요일
- 2) 시간 : 오전 9시 ~ 오후 12시 30분
- 3) 장소 : 나성순복음교회 교육관

3. **대상** : 에녹회 회원 및 60세 이상 어르신 (선착순120명까지)

4. **학비** : 한 학기 \$30.00

5. **등록기간** : 8월 4일(주일) ~ 8월18일(주일)

6. 접수 및 문의처 :

(솔로몬 지혜원 앞) 나성순복음교회 323-913-4499 (담당교역자: 서미수 전도사 / 부장: 지길준 집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실버사역의 교회교육은 하나님의 뜻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실버드림대학은 에녹회 회원 및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며 자기 소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실버드림대학은 사회와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자요,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대학입니다.

실버드림대학은 본 교회의 에녹회 회원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과 더 나아가 한인사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믿음 생활과 여가 선용을 위해 그리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과목들을 개설하였습니다.

준비된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실버드림대학으로 오십시오.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그리스도의 표적을 위한 기적들

마태복음 8:23-2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이적은 한자로 異(다를 이), 跡(흔적 적)입니다. 보통 인간의 지각, 이성적 분별력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일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이적이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하기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신 흔적을 말합니다.

문둥자의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대화하시고 교통하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데, 문둥병자 하나가 그 전날 계속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자기병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놓칠새라 저녁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멀찍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지점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 하셨을 때 그 문둥병자도 거기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내려오실 길목을 지키고 앉아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이 기도를 다 하시고 내려오시다 길목을 지키고 있던 문둥병자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나아와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디"라고 말합니다.

이 함축된 표현의 간절함 속에는 자기는 예수님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문둥이인 자신을 위해 오신 분으로 알아보고 믿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며 구원해주시실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 문둥병은 문제없이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믿어지지만 내가 문둥병 고침 받을 수 없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의 마음에 달려있음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절대주권을 100% 인정해 드린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말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이 기적도 예수님을 그 문둥병자가 알아보았고 믿어진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였다는 사실이 100%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불신앙으로 망했다는 기록으로 경계의 교훈을 삼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됨으로 기적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적인 구원을 얻었다 하는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이적 혹은 기적으로 구원 얻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의 재료거리로 제시되어 기록된 것이 성경이란 것입니다.

백부장의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

문둥병자 일이 있고 난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디"(마8:6)하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디"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군대의 파견 대장이고 그 사람 밑에는 10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는 부대 안에 오시는 것을 감당 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아주 겸손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가혹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마8:10)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디" 이에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이적 기사, 이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의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는 베드로가 사는 벳새다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를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찾아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데리고 다니시기 때문에 베드로 집에는 부인과 아이들만 사는데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 집에 생활비 좀 보내라고 돈 한 푼 주신 일도 없고, 가장인 베드로는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며 제자 노릇하느라 집안일을 돌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가 할 수없이 친정 어머니를 오시라고 해서 그 가정에 봉사하시다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동네 소문이 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다니느라 가정을 버렸기 때문에 그 장모님을 모셔다가 자녀들을 돌보게 하고 가사를 도와달라고 하고 베드로의 아내가 부딪가게 가서 노동해서 품 팔아서 먹고 살게 되었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12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마8:15)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앓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깨끗이 나서서 열이 싹 내리고 멀쩡하게 일어나서 물통 들고 우물에 가서 물 길러가니 다른 사람들이 놀라며 어찌된 일이나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

도의 표적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되어졌고 날이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으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마8:16).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디(마8:17,사53:4).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적기사의 표적이 베드로가 살던 동네를 복음화 시킬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

예수님의 이적기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구약시대부터 보내주신다고 예언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며 옹위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무리가 자기를 둘러싸음을 보시고 저복속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기를 제자들에게 지시 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와서 큰절을 하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했습니다.

서기관이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구약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절의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한 기대심리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례 치르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겠으니 장사할 수 있는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냉담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하십니다(마8:22). "너는 내 제자이고 영생의 생명을 얻어 산자가 되었는데 산자가 왜 죽은 자의 일에 매여서 산자가 해야 할 살리는 일을 지체하고 시간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려고 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면서 계속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힘써야 하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 들을 장례 치르도록 내버려둬라" 하신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 본문 23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에 갈 준비를 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배에 오르셨습니다. 얼마쯤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태풍이 불어 닥치니 파도가 산더미처럼 일어납니디. 그런데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 파도가 얼마나 세계 부딪혔는지 배안에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배에 탄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고 뱃사람,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는 배라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의 기술과 경험과 노력을 다해서 역설 풍랑을 헤쳐 나가 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파도는 점점 더 높고 역세게 배에 부딪혀 곧 뒤집힐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의 기술도 경험도 능력도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도 이배에 타셨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보니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위에 사공이었던 제자들과 배 밑에 칸에서 깊이 잠들어 주무시고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에 함께 뒀다고 하면 어떤 천재지변도 예수님이 타신 배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만 알뜰히 나서 죽겠다고 호들갑떨고 소란스럽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흔들고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디"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관심이 없이 자기들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적은 자들이여"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 즉시 바람과 바다는 아주 잔잔해 졌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는 이 한마디 속에는 내가 이 배 안에 있는데 이 배가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고 왜 공연한 걱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자신의 그릇 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믿고 맡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쓰실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나를 쓰실 계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길이 평탄해지고 험퉁하게 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p>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명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교회 회장.</p> <p>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p> <p>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p>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o.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S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돌끝마다 있는 은혜

“사람 살 길은 돌끝마다 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하시곤 했던 말이다. 아마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늘 어떤 상황에도 헤쳐 나갈 길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던 말씀이었으리라. 구한말과 일제시대 6.25 동란 보릿고개를 넘으며 순한 역경과 가난을 헤쳐온 그 시대 어른들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길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살아오신 듯하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끈기있게 인내하며 살아오실 수 있었을 터.

지금이야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회내 여러 식구들을 섬기다 보면 가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느끼곤 한다.

오래전 나이든 부모님을 열심히 일하며 섬기던 외동딸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절망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 늘그막에 의지하고 살던 유일한 혈육이 가버린 저 노부부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생각해도 막막했다.

그런데 몇년을 지나고 소식을 들으니 노부부는 믿음 안에서 의외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활하고 계셨다. 일찍 간 딸의 뉘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나름 잘 지내고 계셨다.

또 몇년전 교회 한 집사님 가정이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는 가정이지만 하지만 어머니가 거의 집안경제를 책임지다 시피 한 가정이었다. 남편은 몸이 늘 안 좋으셨고 결혼한 딸은 가정문제로 집에 와있고 다른 자녀들도 큰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그만 퇴직 중병에 걸리고 마셨다. 사정이 그런 까닭에 아프면서도 병원에 갈 때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끈기있게 투병생활을 하셨고 교회와 주위분들도 열심히 기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깊어져 여집사님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 것이었다. 이제 저 식구들은 어찌될 것인가? 막막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답답한 마음이었다. 그렇다고 목사나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났는데 지난주 그 가정의 근황을 듣게 됐다. 절망적이었던 그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늘 병약했던 남편은 용기를 내서 자립하는 중이고 가정문제로 식음을 전폐했던 딸은 믿음으로 회복돼 이제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다른 자

녀들도 모두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할렐루야! 돌끝마다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돌아가신 집사님이 보면 기뻐할 모습이다.

그러고 보면 옛 어른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성경 진리를 삶을 통해 체득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다. 사람 살 길이 돌끝마다 있다는 것은 바다가 갈라지고 예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언제나 낙심치말라 하셨던 성경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자살 행진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이지 아닐 수 없다. 비록 도전과 시련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사람 살 길을 돌끝마다 두신 것이다. 그런즉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용기를 낼 것이요,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고후 4:8-9)

글=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엄영민 목사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3)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다르고, 믿는 종교에 따라 다르고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도 삶의 모습은 다양하다. 또한 신자라 해도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르다. 이 다른 것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로 나아갈 수 없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영 두 목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롬 6:6 골 3:9

바울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새생명을 얻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주 과거의 습관 관련 생활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의 본성은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 격한 분노, 교만, 나쁜 습관, 세속에 묶여있는 지혜, 자기 의(義),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고 있던 거짓된 신들, 자만, 거짓말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학습되고 경험된 것들이다. 즉 사단 아래에서 만들어진 속성이다. 이를 십자가에 못박고 죽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어떤 것들을 죽일까 하는 결정은 각자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필자에게 묻는다면, 내게 가장 크게 자리한 옛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이었다. 이것 때문에 손해 본 경우도 있고, 타인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때도 있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통곡하기도 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과 인도를 따라 살기를 거듭할 때 안에 조절되지 못한 감정이 점차 조절되어 나갔다. 지금도 완전히 치유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치유됐다.

옛것들을 다스림에 있어 한순간 다스려지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옛습관의 강인함 때문이다.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다. 마치 잠초가 뿌리는 뿔뿔이나 뿔뿔이 뿌리가 아직도 땅에 누 부분에 뿌리내리고 있다가 밤에 이슬을 머금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하라. 어떤 부분의 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 관계인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해답을 주실 것이다.

시편 기사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시어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다”(시143:5-7)라고 기도했다.

옛날을 기억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낱알이 고하고 고치며 나아갈 때 영혼의 메마름은 점차 해결될 것이다. 필자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박는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당시는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이다.

글=이영두 목사
호크마신학대학교(hokmahcollege.com) 학장 역임
엘레이살롬장로교회 담임목사 역임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호크마신학대학교 영성신학박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소셜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프로 골프 선수 지망생 모집

- 현재 타수가 보기 플레이(90타)이하
- 대상 : 7세~11세 (1~2명)
- 코리아타운내 픽업가능
- 문의 : 310.598.0746/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 Missionary Professor)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English (초급 영어)

▷Is the store open on Sunday?
일요일에 그 상점이 문을 여나요?
▷Yes, it is open on Sunday.
네, 일요일에 엽니다.
▷Is there a bank in the city?
이 도시에는 은행이 있나요?
▷Yes, there is. It's on the fifth street Olive Avenue.
네, 있습니다. 5가와 올리브 애비뉴에 있습니다.
▷Are there many students in the school?
그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까?
▷Yes, there are many.
네, 많이 있습니다.
▷Are many teachers in the classroom?
교실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No, there aren't many. There is only one teacher.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단 한분이 계시는 뿐입니다.

English (중급 영어)

I was there and saw the Holy Spirit come down on him like a dove from heaven. And the Sprit stayed on him. Before this I did not know who he was.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had told me. You will see the Holy Spirit come down and stay on someone. Then you will know that he is the one who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I saw this happen, and I tell you that he is the Son of God. (John 1: 32-34)

나는 거기에 있었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 영이 그분 위에 머물러 계셨다. 이 일이 있기 전엔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고 나는 이 일을 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요1:32-34)

English (고급 영어)

Age appears to be best in four things: old wood best to burn, old wine to drink, old friends to trust, and old authors to read. A prudent question is one-half of wisdom. A wise man can make more opportunities than he finds. A bachelor's life is a fine breakfast, a flat lunch, and a miserable dinner. (Francis Bacon)

나이가 들수록 4가지 일들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낸다. 오래된 장작이 불을 지피기에 가장 좋고 포도주도 오래된 것이 마시기에 그만이다. 오래된 친구가 가장 믿을 수 있으며 옛날 작가의 작품이 가장 읽기 좋다.

현명한 질문은 지혜의 절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많은 기회를 만든다. 독신자의 생활은 아침에는 좋은 식사, 점심에는 보잘 것 없는 식사, 그리고 저녁 식사는 비참하다. (프랜시스 베이컨)

자료 제공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효식 교수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유튜브로 독학해 카네기홀 선 17세 소녀 이젠 전도자로

「나의 꿈은 천상의 피아니스트」 펴내고 전도 사역 준비



만 17세의 어린 나이에 '인생의 절정'을 경험했다. 하지만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서서 또다른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

2011년 1월 뉴욕 카네기 메인홀, '아이작 스티븐 오디토리움'에서 독주회를 마친 김지은 양(사진·이사도라 김)은 2천여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다섯 번의 커튼콜을 하고서야 무대를 내려왔다.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기도였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것이 싫었다.

지은 양은 어머니 얼굴을 모른다. 자신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역할은 할머니가 대신했고, 음악은 그런 지은 양의 유일한 벗이었다. 네 살 때 처음 만난 모형 피아노에 빠진 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

습에 열을 올렸다.

그러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를 따라 베트남으로 이민을 떠났다. 호프민시 번두리의 월세방 반지하에서 열악하게 지냈지만, 작은아버지가 선물한 뜻밖의 선물 '아마하 피아노'는 한 줄기 빛이었다. 아버지도 "너는 피아니스트가 돼야 한다"고 기뻐할 때마다 이야기했다. 그러나 학교도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이어서, 피아노는 오로지 혼자 힘으로 익혀야 했다.

하지만 지은 양은 불세출의 피아니스트 호르비츠를 비롯해 아르헤리치, 예프게니 키신, 마우리치오 폴리니 등에게 사사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을까? 바로 유튜브(YouTube) 덕이었다. 지은 양은 이들이 연주하는 동영상들을 스승 삼아 똑같이 따라하려 노력했다. 연습이 거듭되면서,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장점을 받아들이는 경지가

다다랐다.

자신의 기량을 점검해 보기 위해 녹음한 동영상을 UCC로 유튜브에 올려놓기도 했다. 처음엔 절망적인 평가 일색이어서 실망도 했지만, 진심이 담긴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들을 통해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었다.

하지만 옆집에선 시끄럽다며 벽을 망치로 광창 치기까지 했다. 가운데 페달을 밟아 소리를 반으로 줄이고, 피아노 위에 두꺼운 이불을 두 겹 덮어놓았다. 아무리 세계 쳐도 소리가 작아 답답했지만, 이러한 극한의 상황을 통해 생긴 손가락 힘은 '남성보다 힘 있는 연주'라는 찬사의 밑거름이 됐다. 그렇게 이어진 연습은 결국 '카네기 메인홀 연주'라는 열매를 맺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독학의 어려움은 오히려 '피아니스트'의 꿈에 대한 좌절로 이어졌다.

물론 피아노를 치고 싶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 낮추실 것"이라는 응답을 듣고 떠나기

로 한다. 목적지는 이스라엘. 애지중지 하던 피아노를 팔아 비행기 샀을 마련했고, 한국인 자원봉사단체 '비아 이스라엘'을 통해 1년여간 현지 중증장애인 등을 섬겼다. 원래는 2년 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품게 하셨다고 한다. 피아노 연주와 찬양을 통한 '한국에서의 복음 전도'이다.

-피아노 연주를 1년간 쉬었는데요.

"베트남에서 처음 올린 동영상들 지금 보면, '왜 이렇게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웃음). 그 땐 확실히 급했지만, 지금은 여유가 많이 생겨 음악을 들으면서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은 아니에요. 제 실력도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치는 편이지만, 최상급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피아니스트'는 세계를 돌면서 연주하는 게 보통인데,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에 다녀오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좀 더 멀게는 카네기홀 공연 이후부터죠. 피아니스트는 단순히 칭찬과 인정을 받고 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디자인,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도 함께 부르고 싶어요. 클래식도 성경적으로 재해석해서 치고 싶고, 작곡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 '성경적으로 재해석한 연주'란 무엇인가요.

"어떤 곡이 있다고 치면, 원래 작곡가가 생각한 의도가 있겠지요. 물론 이것도 참고하겠지만, 곡을 치면서 받는 영감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곡과 맞는 듯한 부분들을 곡에 넣어 표현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연주한다든지 하는 방법인데, 콘서트를 하면 미리 이러한 부분들을 관객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연주를 통해 복음 전도를 한다는 이야기이군요.

"이스라엘을 가면서 피아노를 내려놓았는데, 봉사를 하면서 다시 피아노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까지 피아노를 연습하게 하신 것도 사명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순종하려 하고, 특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

어야 하고,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싶어요.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사역자 분들이 많고 모두 귀하지만, 저는 믿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소년원이나 군대, 병원이나 학교 등을 찾아가 연주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 보고 싶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나도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뭔가를 이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까?'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 보려 하고, 내 힘으로 하려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양의 사연과 피아노 실력은 곧 SBS TV <놀라운 대회 스타킹>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교회 콘서트나 전국투어도 계획 중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최근 펴낸 「나의 꿈은 천상의 피아니스트(마음과생각)」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책은 어린 시절 힘들게 피아노를 연습하고 카네기홀에까지 서는 1부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 유대인 선교와 장애인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2부 '다시 태어나다(Born Again)'로 구성돼 있다.

이대웅 기자



김지은 양의 책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캘리포니아 로버타 원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미국가정협회 "무신론 단체가 뚱에 명령까지 내려"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로 공군측에 면담 요청

미군 내의 종교 자유가 동성애 혹은 무신론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자 미국의 가정사역단체가 나섰다.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미국가정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는 최근 공군 군복이 무신론에 관한 글을 군부대 웹사이트 군복 칼럼란에 게재했다가 삭제당한 일을 두고 공군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미군 내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AFA는 "이런 논란에는 군종교자유재단(Military Religious Freedom Foundation)이란 단체가 있다"며 "이 단체는 군 내의 기독교 신앙 표현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 또 이 단체는 군에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군의 지도자들이 이 단체의 반기독교적 정

를 따르고 있다"고 했다.

MRFF의 리더는 지난 봄 국방부에서 공군 지도자들을 만난 바 있는데 AFA는 "그 만남 이후부터 공군 내에 종교 제약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아이다호 기지의 카페에 있던 종교 그림들은 MRFF의 대표가 부대 지휘관에게 전화 한 통을 한 후 56분 만에 제거됐다"고도 했다. 최근 공군 군복의 글이 삭제된 이유도, MRFF의 대표가 부대 지휘관에게 건 전화가 결정적이었다.

AFA는 "의회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왜 공군이 이 단체의 대표와 사적 만남을 갖도록 허가했는지 묻고 있다"면서 "공정성을 위해 우리와도 만나 달라. 우리에게도 그런 종류의 만남을 허가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LCA, 펜실베니아서 2013년 총회 개최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이하 ELCA)는 펜실베니아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 교단은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12일부터 18일까지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의 데이빗 L. 로렌스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2013 ELCA Churchwide Assembly' 참석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의 대표단들이 모였다.

올해 총회 주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항상 새롭게 창조된 존재 (Always Being Made New)'로 정해졌다.

ELCA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주제는 ELCA 교단 설립 25주년을 기념해서 정해진 것이다. ELCA측은 "우리의 뿌리는 25년 이상 길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교단은 여전히 새롭게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강조하

고 있다. ELCA측은 "우리는 매일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체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은 세례를 통한 사랑과 부활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이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인 우리들은, 더 이상 위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산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사랑하는 동료로서, 경험과 지혜와 능력의 풍부한 다양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회복됐다"고 했다.

피츠버그에서 열린 ELCA 총회 소식은 SNS로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트위터 태그는 #elcacwa이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다양한 행사가 플리너리로 알려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플리너리 세션은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됐다.

강혜진 기자

뉴욕교협 북미원주민선교 476명이 10지역에 복음 전파

뉴욕교협이 최초로 진행한 북미원주민 연합선교가 4일부터 10일까지 총 6박7일 간의 일정으로 미네소타, 위스콘신, 뉴욕업스테이트 지역에서 총 476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뉴욕교협은 올해부터 산하에 원주민선교 분과를 조직해 뉴욕 일원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참여해 북미원주민선교에 나설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원주민선교는 뉴저지, 델라웨어, 보스턴, 필라델피아, 스포링필드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 진행됐다.

올해 방문한 북미원주민 거주지역은 미네소타 지역 4곳, 위스콘신지역 5곳, 그리고 뉴욕지역 1곳으로, 선교팀은 총 10곳에 거주하는 북미원주민들과 함께 음식과 문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복음을 전했다.

새로운 북미원주민지역은 올해 처음 문을 열고 선교팀을 환영했고, 기존의 지역들은 더욱 큰 사랑으로 선교팀을 기다리며 맞이했다. 특히 꾸준한 북미원주민 선교의 결과로, 원주민의 자녀들이 비전을 갖고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소식들을 이번 선교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선교에 함께 참여한 송일권 목사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 삼아 자신들의 문화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며 "또 이번 선교활동 중 슬그머니 닫힌 지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더니 문이 열렸고, 내년에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들을 때에 합심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참석자들은 버스에 몸을 싣고 새우잡을 자면서 이틀을 달려 각 지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9일 저녁 데이튼 사랑의침례교회(담임 순호근 목사)로 집결했다. 마지막 날인 9일 저녁 참석자들은 함께 모여 밤늦은 시간까지 찬양하고, 각 순별로 선교보고를 하면서 간증집회를 가졌다.

김기호 목사는 "비가 내린 지역에서 잠을 자고 실수로 챙기지 못한 물건들이 있었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며 "선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경험은 놀라운 것이었다. 부족함과 도움은 서로의 사랑을 친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동문교회 제직세미나 "곶은일 마다하지 않는다면..."



장재효 목사 초청 영성집회가 6월 30일부터 성은복음선교회 주관으로 남가주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동문교회에서 제직세미나가 개최됐다.

장재효 목사 초청 영성집회가 6월 30일부터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주관으로 남가주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동문교회에서 제직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장재효 목사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문1:1-2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 목사는 "교회에서 '주여 저부터 곶은일을 하며 쓰임 받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입장보다도 예수님의 입장을 따라 생각과 말을 한다면 진짜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다"며 "성령님께서 주신 영감적 신앙이 아니라 인위적인 신앙을 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그저 교회에 나와 직권을 받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인가라는 것이다. 그런 교회라면 다 회개하고 성령님께 붙들린바 되어 가는 곳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라며 "교회의 영적 가치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천만배 더 가치가 있다. 교회를 경제적 활용의 자리로 이용하면 절대 안된다. 조건을 갖고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는 장소가 교회"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이 갖는 영적 가치와 동일해야 한다. 예수님과 가치

관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회의 목자를 세울 때 아무게 집사, 아무게 장로의 뜻과 힘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비중의식을 제직자들이 가질 때 그것은 사탄이라 할 수 있다. 원수 마귀가 넘치고 생지욕과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목자와 양떼가 한 힘으로 나갈 때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사회는 변화되고 세계 선교에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리라 믿는다"고 역설했다.

제직세미나는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노회장인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축도로 마쳤다.

한편 그동안 공석이었던 동문교회 담임 목사 자리는 추천을 받은 부목사인 김상호 목사가 승인됐다. 김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았다.

강사로 초청된 장재효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부서) 총회장을 지냈으며, 국제신학대학원 초대 총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전국기도원총연합회 총재, 성경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에 본국 한국일보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민감동 그랑프리 대상(종교 지도자 부문)을 받기도 했다. 또 그의 목회 일대기는 굿뉴스미션워싱턴필름(대표 이태봉 목사)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유튜브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LA 지역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p> <p>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일오후 7:00</p> <p>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말-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30</p> <p>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1925 Wilshire Blvd, LA /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 3119W 6th, LA, CA 90020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p> <p>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p> <p>나성한인교회</p> <p>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p> <p>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p> <p>김광삼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말오전 11: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6:30 (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שא는 은혜공동체</p> <p>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성경공부 주말오전 11:00</p> <p>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p> <p>김요섭 담임목사</p> <p>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p> <p>김성광 담임목사</p> <p>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사랑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p> <p>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327-9200, T. (213) 598-9932</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17:27(고) 수료생예배, 현재4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가꾸없이 인산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p> <p>박승부 장로</p> <p>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p> <p>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마켓 뒤) T. (213) 381-7273</p>	<p>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넌전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p> <p>요한 선교회</p> <p>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김세환 담임목사</p> <p>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p> <p>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p> <p>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곧 열매</p> <p>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F. (213) 381-2201</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친.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간의 흠뻑</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p> <p>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p> <p>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전문의 213) 505-7067</p> <p>대표 김갑선 목사</p> <p>지구촌 농업선교회</p> <p>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금요일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회 벨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antoring)</p> <p>5005 Eder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p>
<p>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p> <p>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오전 6:20(토)</p> <p>김기섭 담임목사</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방인을 복음화하며, 이방인들을 치유하며, 선교를 행하는 교회</p> <p>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p>

교회미션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해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성영 목사
백이나 및 수양관 사용
예약문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714)932-8993, (760)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전길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창스년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정성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u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등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유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할-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무반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화성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이성현** 담임목사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수/금)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토/일)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남가주중부교협, 광복절 68주년 성가제 개최

곽소건 목사 “하나님의 은총에 찬양으로 보답”



남가주중부교협이 광복절 68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 성가제가 지난 11일 열렸다.

남가주중부교협(회장 곽소건 목사)이 광복절 68주년을 맞아 제16회 광복절 기념 성가제를 11일 오후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담임 석태운 목사)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1부 기념예배, 2부 성가 찬양제, 3부 감사와 기쁨의 나눔 시간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허귀암 목사의 사회, 황에스터 목사의 대표기도, 김영길 목사의 '내게 구하라'는 제목의 설교, 복음성가 가수 이종진 목사의 특송 순으로 진행됐다.

곽소건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민 사회에서 점점 광복의 의미가 희박해져가는 이때에 조국을 그리워하며 이전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찬양으로 보답하고, 이민의 삶을 사는 다음세대에게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2부 성가 찬양제는 전통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애국가 제창과 만세삼창으로 이어졌으며, 가나안교회, 감사한인교회, 생수

의강선교회,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성가대의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 아니면, 찬송하게 하시네’ 등의 성가가 울려 퍼졌다.

또 피아니스트 미아 셸턴(Mia Shelton)의 독주, 은혜찬양 율동선교단의 부채춤 공연, 목사장로부부합창단, 조이폴선교중앙단, 햇세드남성중창단, 속명칸테모스중창단의 기쁨의 찬양으로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는 모든 회중들이 다함께 일어나서 ‘광복절 노래’를 제창했으며, 김영대 목사의 축도로 행사를 마쳤다.

남가주중부교협은 29년 전에 세워졌고, 에너하임, 알테시아, 벨플라워, 부에나파, 세리토스, 사이프레스, 놀워, 다우니, 라하브라, 라미라다, 라팔마, 레이크우드, 로스 알라미토스, 산타페스프링스, 사우스게이트, 스탠턴, 웨스트민스터, 워터어 등 18개 지역 140여 교회가 회원으로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코너스톤교회 ‘셀러브레이션 2013’ 주님께 영광 올려

美 유명 뮤지션 대거 참여, 콘서트장 청중으로 가득 채워



20주년을 맞은 코너스톤교회가 조금 색다른 찬양콘서트 무대를 마련했다.



10일 열린 콘서트에서 유명 아티스트들과 코너스톤교회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색다른 찬양콘서트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 2013’이 지난 10일 오후 세리토스퍼포밍아트센터(Cerritos Center for Performing Arts)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 행사는 문화사역에 힘쓰는 코너스톤교회(이종용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이웃들에게 2시간 30분 동안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교회 교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론 브라운(색소폰), 데릴 크룩스(베이스), 마코토 미야시타(일렉트릭 기타), 레이포드 그리핀(드럼)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 드웨이인 스미티 스미스(베이스), 프랭크 오티가(타악기), 크리스틴 김(피아노), 정한경(키보드)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했던 이종용 목사와 코너스톤교회 찬양팀·성가대·청년부·중고등부 성가대 등 교회 구성원이 참여해 지난 수개월간 갖고 닦았던 솜씨를 뽐냈다.

특히 이번엔 미국 대중가수 제니퍼 로페즈 보이스 트레이너인 존 프러커가 그간 교회 성도들에게 발성법을 훈련시킨 것에 이어 콘서트에서 지휘 70% 이상을 맡았다. 콘서트 프로그램은 현대 음악으로 구성됐으며, 스킷 드라마와 어린이 찬양대도 무대에 참여해 1~3세가 함께 아우러져 하모니를 이뤘다. 또한 론 브라운의 색소폰 연주와 간중 시간이 있었다. 또한 이종용 목사는 ‘갯세마네’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불렀으며, 이날 센터에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운 청중들은 무대에 오른 이들에게 많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종용 목사는 “코너스톤 교회는 중형교회로서 중소교회에 모형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며 “이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이며 주님의 명령이다. 사탄이 문화를 조종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 문화라는 도구로 쓰여 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미국, 크리스천으로 가득하지만 열정 없었다”

그렉 로리 목사, 주일 설교서 4차례의 ‘영적 각성 운동’ 설명



그렉 로리 목사는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새로운 시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하비스트교회 담임)가 미국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4가지 영적 각성에 대해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다시 부흥을 일으켜주시도록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로리 목사는 요나서를 본문으로 한 ‘우리 시대의 부흥’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부흥은 무엇인가?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는 부흥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새로운 시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권면했다. 그는 “부흥은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로리 목사는 요나서를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각성 중 하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소개하면서, 니느웨는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들을 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나, 큰 부흥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로리 목사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모든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미국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또 한 번의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을 바라자. 영적인 각성이 두 번 혹은 세 번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이 있기 전,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 목사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전한 복음을 통해 니느웨에 강력한 부흥을 가져오실 수 있다면, 분명히 미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흥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일도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로리 목사는 “요나는 단순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욘 3:4)고 전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없으며,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로리 목사는 미국의 부흥을 언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일어났던 4차례의 영적 각성을 꼽았다. 그 첫번째는 1700년대 일어났던 부흥 운동으로, 당시는 여전히 미국이 나라를 형성하던 시기였다. 조나단 에드워즈 혹은 조지 휘필드 등이 영적 운동을 주도했으며, 1740년과 1742년 사이 뉴잉글랜드교회(New England)에 25,000명에서 50,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

두번째는 1790년부터 1840년 사이에 일어났다. 당시 미국은 황량한 서부가 대다수

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성범죄가 빈번했다. 그 때 찰스 그랜디슨 피니와 같은 영적 리더들이 말씀을 전했으며, 수천 명이 회심했다. 청년 캠프에는 약 15,000명이 모였다. 1800년과 1803년 사이 켄터키에서는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했다. 당시 젊은 변호사였던 아브라함 링컨 역시 이같은 기독교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는 1857년과 1859년 사이에 일어났다. 48세의 사업가 제레미아 랑피에르는 뉴욕시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그의 모임은 작게 시작됐으나, 몇 달 안에 뉴욕 시내에 오후 12시 점심 기도 모임들이 20군데나 생겼다. 6개월 만에 10,000명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3월과 5월 사이에 뉴욕시민 10,000명이 회심했고,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5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세번째 영적 각성의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이 가운데 D. L. 무디도 있었다.

네번째 영적 각성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예수 운동으로, 당시 미국이 러시아와 긴장 관계에 놓여 혼란스러울 때였다. 또한 존 F. 케네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 당하고 베트남 전쟁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돈을 겪었고, 아이들은 사회에 반항적이 되어갔다. 마약과 섹스, 로큰롤이 크게 유행했다. 비틀즈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유명세를 떨쳤다.

로리 목사는 “그러나 그 때 불가피하게 초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수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께 나왔으며, 이 가운데 일부 교회들은 매우 보수적이었다”면서 자신 역시 1970년대에 회심했다고 간증했다. 그는 “우리 교회도 그 당시 세워졌다”고 말했다. 예수 운동은 웨스트 코스트에서 시작되어 미국과 유럽을 통해 확산됐다.

로리 목사는 “그러나 이 모두는 40년 전의 역사였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 다시 기도해야 한다. 미국에는 또 다른 부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편 85편 6절 “우리를 다시 살리시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 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 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씀을 봉독하며 기도했다.

로리 목사는 미국 전도의 필요성을 또한 강조했다. 로리 목사는 “미국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다. 우리는 밖으로 가서 전도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래된 신자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영적인 각성을 가져오실 수 있으며, 부흥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는다. 니느웨를 향해 외쳤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자”고 믿는 자들을 격려했다.

강해진 기자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정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한아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예배 오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기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재재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재재 8:00 분당

남가주 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3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누리는 성도의 삶 선과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분당)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10:00(미리본센터)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미리본센터)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리본센터: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미리본 센터)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앨버틴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전 1:30

앨버틴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용적 생활의 사랑을 강조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년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 신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감을 건너 세게로”, “사랑은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삼김의 사랑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미 테네시 법원 “아기 이름에 ‘메시아’ 못 쓴다”

담당 판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을 위한 이름”

미 테네시 법원에서 7개월 된 남자 아이의 이름을 ‘메시아’에서 ‘마틴’으로 개명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주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성(姓)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에 출두했지만, 아동양육법원 루 앤 벨류 판사가 아이의 이름을 듣고는 성(姓)이 아닌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벨류 판사는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다고 여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가 이름을 변경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메시아’는 2012년 현재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아기 이

름 중 네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이날 판결로 아기는 부모의 두 개 성을 따라 ‘마틴 드산 맥컬로우’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마틴의 어머니 젤리사 마틴은 이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벨류 판사는 “메시아라는 이름은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코크 카운티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메시아라는 말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붙여진 것인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덧붙였다.

신디 김 기자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확장 이전 기념 세일!

100불 이상 구입시마다
미네랄 회색 바다 소금
1파운드 (16온스-40불상당)

무료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100불 이상 구입시 마다
Sea of Cortez 무공해 천연 미네랄 회색 바다소금
1파운드(16온스 - 시판가 40불)를 증정하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No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No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리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할.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잠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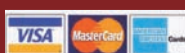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니만큼 느끼고 살아보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연연구소 수료
응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Life



「워키토키 유럽」 저자들과 떠나는 유럽 여행(2): 베를린에서

독일 통일을 이뤄낸 ‘실천적 공동체 영성’ 을 찾아서

변호사(황경태)와 농부(홍윤선), CEO(추광재)와 사회학도(최규동) 등 네 명의 크리스천 남성 청년들이 유럽 곳곳을 탐방하며 ‘살아있는 공동체 영성’을 찾아나선 여행기, 「워키토키 유럽(Walkie Talkie Europe·이담복스)」의 저자들이 신앙의 ‘본류’를 찾아 떠났던 그 소중한 경험을 본지에 열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축제, 그 후에 남은 것은

드디어, 그토록 고대하던 베를린 입성. 베를린에 그렇게 오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저 무너진 장벽, 냉전의 아이콘인 동시에 탈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여 그 장벽을 무너뜨린 베를린 사람들(Berliner)의 심정을 잠시나마 깊이 공감하고 싶었지요. 눈에 보이는 유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정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 통일의 실천적 공동체 영성, 교회의 역할(과거)과 기능성(미래)을 말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의식있는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독일개신교회연합(EKD·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은 통일 이야기를 향한 나의 열망을 비춘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나의 열망을 공감해 준 EKD 비서의 도움으로 통일 당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홀 박사님(Dr. Holl)과 연락이 닿았고, 베를린 EKD 회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통일에 있어 교회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동독교회는 자유(liberty)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개념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동독 사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생각될 때도 동독교회는 그걸 보존하고 있었지요.

동·서독 교회가 서로 만나 교류하면서 동독교회는 점차 소위 ‘계급장 떼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서독의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전 동독교회 내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체제에 대한 비판이 가능했지요. 1989년 니콜라이교회의 평화기도회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동독교회가 이를테면 민주주의의 핵심개념을 보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과연 독일 통일 당시 교회가 했던 역할은 부인할 수 없이 선명했습니다. 동독 비밀경찰인 ‘슈타지(Stasi)’에서 일했던 공산당 간부는 독일교회의 월요시위(Montags-Demonstrationen)를 회상하면서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대비를 했지만, 쫓불과 기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다.”

20년 전 통일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이 그



독일 빌헬름 카이저 교회

처럼 의미있는 것이었다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홀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통일 전·후 종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교회는 통일 전에는 ‘제도로서의 교회’, 즉 외적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면, 통일 이후에는 내적 역할, 즉 ‘종교의 근본적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재통일 이후 독일에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오씨(Ossi)’와 ‘베씨(Wessi)’. ‘오씨’는 동쪽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Osten에서부터 생긴 말로,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놈들’이라 구동독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표현, ‘베씨’는 서쪽을 의미하는 Westen에서 유래한 것으로 ‘탐욕스럽고 거만한 서독놈들’이라 구서독 지역 출신을 비꼬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씨와 베씨 사이의 갈등은 한국의 경성

도-전라도 간의 갈등 만큼이나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속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거부하고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게 만드는 복음이야말로 욕망과 죄의 결과물인 수많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울음(공의)의 선포와 그것을 통해 드러난 죄에 대한 용서(자비)가 하나된 역사가 십자가 외에 또 있었습니까. 2000년 전 고대 기독교는 이러한 본질적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동독인과 서독인 사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질감을 가졌던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개신교의 역사적 기초 위에서 독일교회가 ‘마음 속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넉넉한 에너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KD 회관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일은 어쩌면 물리적인 베를린 장벽을 허물기까지 교회가 했던 역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일지 모르지만요.

자유를 사용하라? 마르틴 루터

통일에 크나큰 기여를 한 독일교회의 중심에는 그들이 자랑스러워 마지 않는 종교개혁의 아버지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3대 저서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다.”

과연 오씨(Ossi)와 베씨(Wessi)들의 통일 독일에는 루터가 말한 ‘종이 되는 희생’이 필

요합니다. 과거 서쪽 독일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모든 서독 출신 그리스도인 역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므로 모든 서독 출신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게으른 오씨’의 종이 될 수 있다.”

40년을 공산주의 체제 속에 살아온 동쪽 사람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요. 서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한다면, 좀처럼 기다리며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동쪽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어야겠습니다.

“모든 동독 출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므로 모든 동독 출신 그리스도인은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베씨’의 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재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은 가슴에 큰 상처를 받았습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의 삶을 살았던 동독 사람들은 역사의 현실 앞에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희생을 전제로 한 솔직한 대화가 양쪽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통일을 비롯한 유럽을 휩쓸었던 종교개혁은 이러한 종교적 기초에서 출발한 자기 희생만이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지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모든 남한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므로 모든 남한의 그리스도인은 북한 사람들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출발선에서 통일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과 종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파괴적 비판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자세를 가지도록 격려하고 기대하면 어떨까요?

현대적으로 세련된 건물들이 즐비하면서도 지난(至難)한 역사의 흔적과 자취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베를린의 EKD건물을 나서며, 한여름 바닷가 같은 파아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잡한 역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청명한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자!’며 주차(?)해 놓은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힘차게 돌리며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재효목사의 반세기목회와 선교확장 보고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게 쓰임받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게 쓰임받은 진실되고 충성스런 종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한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은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과뿐이더라!”

장재효 지음

진실로 바른 목회를 열망하며 책임목회의 사명자로서 더 많은 구령성과를 위해 받은 바 주님의 은혜보답과 맡기신 사역의 영적성과를 위해 진총간력하시는 목회자라면 이 책을 탐독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시대에 요긴하고 더욱 힘있게 쓰임받을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이 책을 구입 탐독하실 때 영적신앙과 사역에 성령님께서 인도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책값으로 지불하신 10불은 한,미간 탁송운임과 구독자에게 배송 우편비로 사용될 뿐, 책값은 무료로 국제성서번역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입문의 : 213.739.0403

낙서판의 이름과 하늘나라의 이름

얼마 전 식사 중 한국 TV 방송에서 초대받은 게스트가 제발 낙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열을 올리며 말하는 것을 스쳐 지나가듯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장소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만리장성에도, 유럽의 파리 에펠탑을 비롯하여 오래된 교회당에도, 미국의 관광명소에도, 오죽 했으면 '낙서 금지'를 호소하는 표시판을 한글로 써서 붙여놓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호사유피 인사유명(虎死留皮人死留名: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이란 말처럼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은 열망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미숙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니라(마16:24)"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름 석자를 예수님 십자가 뒤에 감추는 것이 하늘나라의 존귀한 이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하시며,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6:1, 2, 5, 16)

미숙한 사람들이 관광명소에 자기 이름을 낙서하듯이 우리 이름을 사라질 세상에 남기려고 끌려 다니는 미숙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막을 수 없는 거짓의 아버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그 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거야,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속삭이며 시험합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박수 받지 못하면 순간에 섭섭하고 원통하여져서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서 섭섭해지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복수심(?)에 불

타서 엉뚱한 사고를 치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받는 것이 봉사와 헌신의 본질은 아닙니다.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인 것을 믿는 성숙한 신앙은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교구와 구역, 기관의 한 분 한 분이 아세안 총회 선교사 가족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또 단기 선교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헌신하십니다. 다들 이제까지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귀가 너의 이름을 낙서로라도 남기고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했는데 왜 교회가 너를 알아주지 않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사람들이 네게는 박수를 쳐주지 않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네가 수고한 것이 얼마인데, 왜 너는 이번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추천이 안 되었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는 진정한 증거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이 칭찬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잠27:2)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 이름을 낙서판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살롬!

도네이션 문화

제가 고국(한국)에 살 때에는 "후원"이나 "후원금"이란 말은 많이 들어 보거나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온 이래 "후원금"이란 말을 많이 듣고 사용하게 됩니다.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도네이션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영리 선교단체를 운영하다 보니 지역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오는 후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나 일반 사회단체로서 기독교 선교단체에 후원금을 보내주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어느 자선 단체의 이사로서 있는 한 미국 교수의 제안에 힘입어 특별 후원금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류를 검토해 본 후 단순히 기독교 선교단체 라는 이유로 후원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일반 비영리 단체였다면 후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류 미국 문화의 일반적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후원을 받고 싶다면 특정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어로 기독교 선교단체를 말할 때 "Mission"이나 "Ministries"라는 이름을 붙입니다만, 보다 적절한 명칭은 "Para-church"일 것입니다.

선교회는 교회와 병행해서 혹은 교회를 대신하여 사역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들이 해야 하는 사역이지만 회귀성과 전문성의 문제로 개교회 자체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사역의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사역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교회가 장애인 특수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선교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단체들은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 모 세 목사
살롬장애인선교회

저는 종종 선교회 사역을 "광야의 삶"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4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상당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아마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후원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산업의 발달로 경제 조치가 급변하는 가운데 재래식 비즈니스의 경우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산업혁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명령을 준수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보호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지난 7월 14일 콘서트는 제 10회 기금마련 행사였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14년만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휠체어와 기타 의료보조기구들을 보내줄 예정입니다. 수혜국은 부르키나 파소라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회교도들이 북쪽에서 계속 남침함으로써 심각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곳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은 장애를 입은 개인에게 기동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영적 전투를 잘 싸우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200불의 후원금으로 수동 휠체어 1대와 크리치 2세트를 구입해 총 3명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후원 문화"는 미국의 문화이기 전에 기독교 문화요, 성경적 문화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사역과 선교사역은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역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은 장애인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요긴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잠14:31)

"이런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선한 목자? 위대한 교사?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도 아시나요? 내가 사랑하고 아는 예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 울 때 같이 울어 주시

는 분, 내가 행복해 할 때 같이 기뻐해 주시는 분, 나의 아주 "시시해 보이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어려운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 어둠 속에서도 노래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인생

길에서 너무 지쳐서 "길없는 길"에서 방향할 때 나를 업고 가시는 분!

이런 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아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길이 더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조이힐로쉽교회 박광철 목사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성,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탕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성경 쉽게 읽는 방법 바로 "여기!"

성경통독의 길잡이 **썩 난 지팡이**

성도들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신년목표로 빠지지 않고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통독'. 특히 평신도들에게 방대한 분량에 내용도 쉽지 않아서 성경한권을 다 읽기는 만만치 않다. LA사랑의빛선교회 이학진 장로는 평신도들에게 성경통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길라잡이 <썩 난 지팡이>를 펴냈다.

"지난 18년간 교회 구역예배에서 말씀 인도자로 사역하면서 평신도들로부터 성경읽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말씀 읽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책은 구약성경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로 나뉘고, 신약성경은 사복음서와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과 예언서로 나뉘었다.

이 책은 성경을 주제와 흐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구성해 각 단락의 중요 구절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쉽게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입문의:(213)434-0033(이학진 장로), (323)766-8793~5(JOY 기독교백화점)

구입처:JOY 기독교백화점(3170 W. Olympic Blvd, #E, Los Angeles, CA 90006)



이학진 지음



초기 한국 천주교회의 선교 전략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세계 4대 종교 즉 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 중 강력한 선교를 하는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다. 일찍이 우리는 이슬람 선교전략이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이라고 들어왔다. 이는 이슬람의 선교방법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예시한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받고 무슬림이 되든지, 아니면 칼을 맞아 죽든지 양자택일 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슬람은 아랍족들에게만 이 방법을 썼을 뿐, 이 민족에게만 칼로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기독교는 초기교회부터 강력한 전도를 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다음으로 이방민족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선포하였다. 사도 바울의 이방선교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기독교 선교는 전도자들의 피흘림의 역사로 점철돼 있다. 그러

나 중세에 접어들면서 선교가 야만인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그 방법이 폭력적 양상을 띠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크족 왕 샤를마뉴(Charlemagne)대제에게서 나타난다. 그는 야만 게르만족을 교화시키면서 세례 받지 않은 자는 사형에 처하는 무서운 법을 시행했다. 그야말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칼이었다.”

이런 선교방법이 장기간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니다. 야만인들을 교화시키는 방법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한 동안 이어졌을 뿐이다.

한국에 천주교회가 전래되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택한 선교 방법은 물론 물리적 힘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양 천주교회 역사에 있었던 전통이 가끔 엿보인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황사영의 백서사건’과 ‘남연군묘소도굴사건’이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황사영(黃嗣永)은 조정의 박해를 피해 충청도 제천 배론의 어느 웅기장이 토굴 속에 숨어 난을 피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조선 조정이 천주교에 전교의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정책을 북경의 주교에게 편지로 보냈다. 폭 62cm, 길이 38cm의 조그마한 흰 비단에 가는 붓으로 장장 1만 3천 자에 이르는 놀라운 양의 편지를 썼다. 이 편지가 비단에 쓰였기 때문에 ‘백서’(帛書)라 일컫는다.

이 백서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서양 나라의 군함 수백 척과 강한 군사 5, 6만으로 대포, 군물(軍物) 등을 싣고 와서 선교의 승인을 강력하게 요구하라는 대목이다. 즉 군사력으로 조선 조정을 협박하여 전교의 자유를 얻으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편지 말미에 “...비록 이 나라는 전말한들 성교(聖敎)의 길 모양에 해로울 것이 없다.”(雖殲滅此邦 亦無害於聖敎之表樣云云)라 썼다. “이 나라가 진멸(殄滅)해도...”라는 말은 한 나라의 백성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배역무도의 말로, 만고의 역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 편지가 사전에 발각되어 황사영은 1801년, 대역모반의 죄를 쓰고 몸이 여섯 조각으로 절단되는 능지처참에 처해졌고 가산은 몰수됐으며, 그 모친은 거제도에, 처는 제주도에, 자녀들은 추자도에 유배되는 등 그의 혈족 모두가 참혹하게 몰락했다.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일어난 지 약 두 세대가 지난 후인 1865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것은 가톨릭교회가 힘에 의한 선교에 연연하고 있다는 확증을 보여준 사건으로, 소위 남연군(南延君)묘소도굴(盜掘)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가톨릭교회가 전교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회라는 오명을 쓰기에 충분했다.

조선에 밀입국하여 전교하던 불란서 신부 페롱(S.Feron)은 박해를 피해 간신히 상해로 피신했다. 페롱은 조선에 전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방책 하나를 구상했다. 그것은 당시 국왕 고종의 친부(親父)로 섭정을 하면서 천주교에 모진 박해를 가하던 대원군의 아버지이며 고종의 조부인 남연군의 능을 파헤쳐 유골을 손에 쥐는 것이었다. 이 유골을 담보로 대원군과 협상을 벌려, 부친의 유골을 찾아 가려면 천주교에 전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이었다.

페롱은 유대계 독일인 상인 오페르트와 의기투합해 1868년 5월, 두 척의 배에 조선인 몇 명과 잡역꾼 100여 명을 태우고 상해를 출발했다. 그들은 남연군의 묘가 있는 충청도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가야산에 당도했다. 중국에서 가져온 공구들로 철저히 관리되어 있는 묘를 파헤치기 시작하자 10여 시간 만에 관이 있는 데까지 파 내려갔다.

그러나 날이 새고 동리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다, 썰물 때가 되어 배가 빠져 나갈 시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중지하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귀로에 하리후포에서 백성들의 집을 습격하여 물건을 빼앗고 횡포를 부린 후 퇴각했다.

그들이 떠나간 후에 묘가 훼손된

것이 발견됐고, 이는 즉시 조정에게 보고됐다. 이 일에 천주교인들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대원군에게 알려졌을 때 그의 참담한 모습과 분기탱천(憤氣撐天)함을 가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조상송배를 극히 귀하게 여겼던 우리 겨레의 전통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음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한 나라 군왕의 조상 묘를 훼손하고 모독한 일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적 작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일로 천주교가 야만의 잡교라는 것이 입증됐고, 천주교도에 대한 참혹한 살인극이 재연되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 미숙과 사려 깊지 못한 행위가 수많은 그리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백서와 남연군묘소도굴, 이 두 사건은 가톨릭교회의 선교 방법론을 가늠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교회 역사에서 가톨릭교회가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선교하는 방법을 택해온 것이 사실이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물리적 힘을 동원해도 좋다는 사상은 위험천만하다.

황사영의 백서사건과 남연군 묘소도굴사건은, 선교는 윤리적이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계속)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스물 세번째 지팡이



이학진 장로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썩난 지팡이 저자

요한계시록 AD 90-96년 경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기에 사도 요한(1:1, 4, 9, 22:8)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서신입니다. 이 때는 이미 네로의 박해(AD 64년)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으며, AD 70년 로마의 장군 디오(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받아 요단강 건너편 필라로 이전됐으며,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직제자가 모두 순교당한 후로써,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여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핍박을 받는 모든 교회에게 과거와 현재의 계시를 통해 모든 환란과 재앙이 지나고 미래의 계시인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언의 책이며 복음 선포의 책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단의 수많은 시도(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가 있으며 그 수위가 증가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14만 4천명의 군대와 순교자들과 함께 싸워 결국 악의 세력이 전멸되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즉 믿음을 지킨 성도(여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부로 불리움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받게 되며 세상은 백보좌 심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새 예루살렘)이 성취될 것을 선언하는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찬 메시지입니다.

상징과 묵시문학을 특성으로 하는 계시록은 문학적으로 읽어야 하며 예언의 책으로서 미래적인 예언(豫言)으로서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연결돼있는 하나님의 말씀

을 말하는 선지자적 예언(預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구약에 배경을 두고 있으므로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스가랴, 요엘 등의 선지서를 잘 살펴봐야 하며, 계시록 404 구절 중에 278구절이 구약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키워드는 1) 요한계시록의 문자적 의미의 오용 방지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받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요한에 의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러한 서간문의 특징에서 주는 사람과 받는 대상을 제외하여 버리고 본문의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영적이나 사회적으로 적용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7년 환란을 잘못 적용을 한다든지, 144,000이나 666의 숫자를 잘못 해석해서 오용을 해서는 안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19:20) 하나님의 인 치심을 받은 성도(7:4)의 반대 개념(구원받지 못할 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 요한 계시록의 숫자 이해(1, 3 1/2, 4, 7, 10, 12, 24, 666, 1260, 144000)

1은 절대를 상징하는 분열되지 아니한 온전한 수로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의미합니다. 3 1/2은 삼일 반, 한때 두대 반때와 같이 완전 수 일곱의 반을 의미할 경우에는 불완전과 짧은 기간을 나타내기도 하며, 42개월(11:2, 13:5), 1260일(11:3, 12:6)과 동일시하여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4는 수량을 나타내는 땅의 수로서 네 생물(6:8, 7:11 등), 땅의 네 모퉁이(7:1) 등 가시적인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이며 7은 3+4 즉 천지의 합수로 신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10은 세상의 만수로서 세상에서는 10을 한 주기의 끝으로 보며 제한된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12는 천지의 승수로서(3X4) 완전수이며 하나님 백성의 숫자, 전체 혹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24는 12의 배수로 완전수를 강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666은 13:18에 한번만 나오는데 상징일 경우에는 인간의 수, 세상적인 수, 마귀적인 수이

며, 암호일 경우에는 한 사람을 상징하는데 네로를 상징합니다. 1,260은 3년 반 혹은 42개월을 날수로 계산한 것이며 교회의 증거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144,000은 12 X 12 X 1000으로 구원 받은 자의 숫자가 많음을 나타내며 이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도 표시되어 있습니다(참고 7:1-17, 14:1-5).

3)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제 21-22 장,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제로 흘러가는데 이 언약의 결론 부분으로, 이 세상의 종말의 시대에 믿는 자들(교회)이 여러 환란을 당한 후, 십사만 사천 명, 흰옷을 입은 사람들, 두 증인, 주안에서 죽은 성도(복 있는 자), 어린 양의 신부들로 표현되는, 믿음을 잃지 않은 자들에게 새 하늘,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제 21: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AP통신 기사에 대한 풀러신학교의 입장

1947년 개교 이래 풀러신학교는 초교파 복음주의 신학교로서 다양한 교단의 한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평신도지도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풀러신학교를 졸업한 한인 동문들은 현재 한국과 북미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세계선교와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풀러신학교는 한인교회의 매우 긴밀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는 한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평신도지도자들에게 신학, 선교, 심리상담 분야에서 수준높은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7월 13일 AP 통신의 인터넷 기자가 작성한 풀러신학교의 ‘원 테이블(OneTable)’이라는 학생 그룹에 대한 기사와 이 기사를 근간으로 작성되어 한인 언론에 소개된 관련 기사들로 인해 적지 않은 분들께서 풀러신학교에 대해 염려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들로 인해 풀러신학교 재학생과 동문은 물론이고 풀러신학교를 사랑하시는 여러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리자면, AP통신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풀러신학교가 가진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나 원 테이블 학생 그룹의 실제적인 성격을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말미암아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오해의 핵심은 1) 원 테이블이 풀러신학교 안에 존재하는, 동성애자들 위주로 구성된 학생 그룹(LGBT group)이라는 것이고, 2) 학교가 이런 동성애자 학생 그룹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풀러신학교는 이 오해들과 관련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안에 대한 학교의 정확한 규정과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풀러신학교의 입장

동성애와 관련한 풀러신학교의 입장은 풀러의 공동체규범(Community Standards: <http://www.fuller.edu/about-fuller/mission-and-history/community-standards.aspx>)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범에 의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세우신 영속적 언약(창 1:26-27; 2:24; 막 10:6-9)이며 이와 같은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 행위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적 행위와 동성결혼은 풀러신학교의 정책에 분명히 위배됩니다. 그리고 풀러신학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학교의 공동체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간에 어느 누군가가 이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학교는 공동체 규범에 따라 퇴교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여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원 테이블의 성격과 이를 승인한 학교의 취지

AP 통신 기사는 원 테이블을 동성애자 학생들로 구성된 성소수자 그룹(a LGBT group)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 그룹은 풀러 내에 있는 24개의 학생 그룹 중 하나로서, 성과 동성애 이슈를 포함하여,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신학적, 윤리적, 목회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자유로이 토론하도록 허락된 그룹입니다. 풀러신학교가 이 학생 그룹을 허락한 이유는, 학생들이 오늘날 사역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 성격적으로, 목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치는 바와 같이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성과 동성애와 관련한 많은 이슈들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 동거, 외도, 이혼, 성중독, 동성애 등의 이슈들과 기타 관련 이슈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학교에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 테이블 학생 그룹은 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학문적 그룹이지 동성애적 행위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정치적 단체가 전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원 테이블 학생 그룹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홈페이지에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홈페이지의 일부 내용은 학교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원 테이블 학생 그룹의 일부 회원의 개인적 의견이 마치 이 그룹 전체의 입장인양 표현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 테이블 그룹은 풀러의 공동체 규범에 반하는 정치적 그룹이 아닙니다. 이번 AP 통신 기사로 인해 생긴 오해들 중 일부에 대해 해명하면서, 풀러신학교는 학교의 정책과 어긋나는 몇 가지 이슈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원 테이블 학생 그룹이 공동체 규범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활동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풀러신학교를 신뢰하고 기도해주신 여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번 일에 대해 아직도 의구심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학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책임 있는 해명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풀러신학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풀러신학교의 모든 교수와 직원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풀러신학교

문의하실 곳(연락처)	풀러신학대학원 한인목회학 박사원(KDMin) 626-584-5244 풀러신교대학원 한국학부 (KKSIS) 626-584-5541 Fuller Public Affairs: 626-584-5695
-------------	---

북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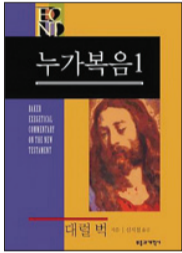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누가복음 1

데럴 북 | 부흥과개혁사 | 1392쪽

'BECNT'로 알려진 베이커 신약성경 주석의 누가복음 편. 본문에 대한 깊이 있고 독립적인 검토에 주목하는 학자에서부터, 견고하지만 쉬운 강해를 갈망하는 평신도까지, 매우 폭넓은 독자의 관심을 충족시킨다. 자료 표기는 저자-연대 방식을 사용하고, 본문은 서론적 주석, 구조 설명, 결론 요약 등으로 다룬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기도

이대희 | 브니엘 | 256쪽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갓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부터, 아직까지 기도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기도의 사람들을 위해 쓰인 책이다. 저자는 기도가 '한 그루의 나무'라고 말한다.



종독 예방 양육

마크 쇼우 | 대장간 | 304쪽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미래를 보도록 허락하셨고, 당신의 자녀나 손자손녀가 어떤 유형의 '종독자'가 될지 알게 됐다면, 예를 들어, 도박, 음주, 포르노그래피, 우상숭배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아는가? 이 책은 당신을 위해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실천전략을 수행할 것이다.



에스더의 일생

최종국 | 콤팩 | 223쪽

선교사의 눈에 비친 에스더서는 상황화의 모델이다. 역사 속 에스더의 비종교 역할은 매우 특별하기에, 저자는 에스더의 일생을 성경에 근거한 사실 70% 정도의 팩션(faction)으로 재조명하였다. 에스더를 아는 이들은 더 친밀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읽을 수 있고, 잘 몰랐던 이들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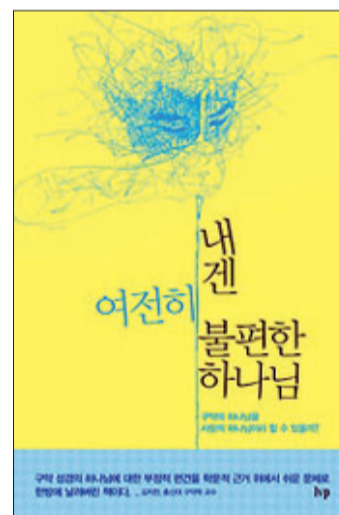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오해' 걷어내기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전도를 하기 위해 비신자들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주된 논리를 듣다 보면, 그들 속에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불편 또는 불신을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는 신약 속 하나님은 좋지만, 구약 속 하나님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인들도 성경 속에 실제 그러한 장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마땅한 해명 또는 변증을 해내지 못하고, 그러한 구절들을 굳이 꺼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다. 최근에는 「자유로부터의 도

피」,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등을 쓴 에리히 프롬(Erich Fromm·1900-1980)이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한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주체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책이 데이비드 T. 램 미블리킨신학교 구약학 교수의 책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IVP·원제 God Behaving Badly)」이다. 램 교수는 기독교 초기(결국 이단으로 정죄된) 마르시온(Marcion·주후 80-160) 학파로부터 2천년 가까이 계속돼 온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은혜롭

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지옥에 관해 많이 말씀하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저자는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언약을 붙잡다 그 자리에서 '즉사'한 웃사(삼하 6:7), 자신의 딸을 강간당하게 하면서 천사를 보호하려 했던 롯(창 19:8), 노예 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 노아의 함 저주(창 9:25), 자신을 놀린 아이들을 저주해 곱의 습격을 받게 한 엘리사(왕하 2:24) 등을 모두 불러내고는, 당시 문화와 풍습, 성경 말씀 정확하게 읽기 등을 통해 진실을 파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데이비드 램 | IVP | 256쪽

해친다. 저자의 방식은 '도킨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성품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충실하게 살피려면,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킬 것 같은 본문을 비롯한 다른 본문도 검토해야 한다. 도킨스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호의적으로 말하는 본문을 피한다. 성경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많은 본문을 살피고 문제가 되는 구절의 양 측면을 연구하며 그 문맥 안에서 본문을 읽어야 한다."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겉술로 만든 발효홍삼”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EQUUS SIGNATURE 2013	SONATA GLS 2013	ELANTRA GLS 2013	ACCENT GLS M/T 2013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499 Lease per month plus tax</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109 Lease per month plus tax</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p> <p>\$99 Lease per month plus tax</p>	<p>VIN# NDU423702</p> <p>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89 Lease per month plus tax</p>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8월 22일 까지입니다.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Tel. 562.900.2399

신간 왕궁 지붕 위의 다윗, 어떻게 남의 집 '목욕탕' 보았나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삶 엮어낸 「구약의 뒷골목 풍경」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 시리즈 I

기생 라합은 자신이 살던 여러 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정탐 왔던 이스라엘 남성들을 숨겨주었다. 이들은 감시를 피해 무사히 탈출한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수 2:15)”.

그런데, 성벽 위에 집이 있었나? 그러나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성벽 자체를 집의 벽으로 쓰기도 했다고 한다. 왜 하필 라합은 많은 집들 중 그런 집을 골라서 살았을까? 가난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손님’들의 마누라가 들이닥칠 경우 줄행랑을 칠 수 있는 완벽한 비상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 정탐꾼들은 마치 그런 남정네들처럼 창문에서 밧줄을 타고 도망친 것은 아닐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당시 집들은 매우 밀집돼 있었고, 무척 혼잡스럽고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들이 사이사이에 있었으며, 문가에는 작은 마당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가 생활이나 다른 작업, 빨래 같은 것을 널 수 있는 공간이 흔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붕은 종종 무엇을 쌓아놓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여놓은 삼대에 숨겼더라(수 2:6)”. 두 정탐꾼을 지붕으로 보낸 라합은 마침 지붕에 있던 삼대(flax), 즉 세마포나 아마포라 불리는 더미를 사용해 이들을 숨길 수 있었다.

이렇듯 생활에 요긴하고 훌륭한 거개 쓰였던 지붕이, 어느 한가로운 이에게는 ‘옆집 여인’의 목욕 장면을 몰래 엿보는 곳이 됐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와 보이는지라(삼하 11:2)”.

전정터에서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오후 내내 낮잠을 잤는지 저녁 때가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나 지붕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렇듯 당시 부유층들에게 지붕은 한가로움과 관계 있는 여가의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예루살렘 왕궁 곁에는 맨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가옥들이 있었으며, 이곳에는 우리아 같은 장수급 인물이 살고 있었다.

‘출애굽 후 광야를 떠돌던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하루종일 무얼 했을까? ‘한 방에 흑간’ 골리앗은 정말 성경대로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을까?’

성경에는 왜 그렇게 ‘근친상간’이 자주 나올까?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나 다윗이 살던 당시 생활상이 궁금해질 때가 있다. 이러한 궁금증에 ‘뒷골목 전문가’인 기민석 목사(공주꿈의교회)가 「구약의 뒷골목 풍경(예책)」으로 답했다.

저자는 마치 ‘직업병’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와 사회, 생활상을 재구성하면서 성경을 읽어나려갔다.

“성경은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 적힌 책이지만, 우리가 흥길동전을 읽으면서 그 소설적 감흥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역사적 정보와 풍속을 발견하듯 성경을 통해서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회, 생활 풍경을 엿볼 수 있다.”

기 목사는 위에서 소개된 ‘집’



구약의 뒷골목 풍경 기민석 | 예책 | 328쪽

외에도 가재도구나 먹거리, 의복과 성(性), 장신구와 화장, 장례와 결혼 풍습, 농사, 전쟁과 여가 활동에서 정치제도나 당파, 법률까지 본문 속에서 단서를 찾고 고고학적 자료를 동원해 풍성한 읽을거리를 만들어 냈다.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 시리즈’ 첫번째 결과물인 이 책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종교개혁 이래 이어진 ‘성경을 그 시대적 배경에서 읽어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해, 성경 속 고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

어놓았다.

저자는 영국 킹스 칼리지 유학 시절에도 뒷골목을 좋아했다고 한다. “누군가에게 런던을 소개하러 나서면, 빅벤이나 트라팔가 스퀘어 같은 뻘한 곳보다 자그마한 임뱅크먼트 가든에서 ‘잉글리시 브레이크프스트’를 같이 먹고 템스 강변의 어느 후미진 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2년 전 두란노 30주년 기념 문학공모전에서 「예언자, 나에게 말을 걸다」로 우수상을 수상한 실력파이다.

이대웅 기자



에리히 프롬의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사랑하시고, 자주 인용하셨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향하신 곳도 ‘구약 성경(신 6:5, 레 19:18)’ 아니었냐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시하셨고, 그의 아들 이심을 선포하셨다.

저자는 ‘진노의’,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폭력적인’, ‘율법주의자’, ‘완고한’, ‘멀리 있는’ 등 구약의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수식어들을 하나 하나 꺼내놓고 이것들이 정당하게 붙은 것인지 현미경으로

살피고 있다. 그리고 당부한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은 구절을 무시하는 대신 연구하고, 토론하고, 가르쳐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신·구약의 하나님이 모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자를 인정하시고 외국인에게 친절하시며, 검이 아닌 화평을 주신다. 또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은혜로운 분이시며, 완고하지 않고 유연성 있으시며, 가까이

계시는 ‘멋진 분’이시다. 정리하자면 ‘매력적이고, 관계를 맺으시며, 선하신 분’이시다.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 본문을 한 글자 한 글자 똑바로 읽

지 않았는지 알게 된다. 또 구약 성경 속 하나님을 오해해 한 것이 크리스천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

이대웅 기자

WCIU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Gold Finger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맞춤 양복 이래서 좋습니다.
한올한올,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975 S.Vermont Ave.#102, Los Angeles, CA 90006 T.213.386.5858 / C.213.663.9556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 철공 용접, 게이트 모터 수리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경남 철공소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10% 할인

✓브레이크 ✓투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백베어 농축 흑염소

-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선녀탕(仙女湯)매매

Meaning yellow matter 금줄에서 나오는 물

The natural minerals, sulfur, Calcium and magnesium with arsenic(비소). 최상급 수질, 최고수준 자연온천을 매매합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할 정도의 최고급 수질 온천을 일명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상 온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Lake Isabella 근처 최상급 수질의 선녀탕,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료와 미용에 으뜸인 자연 온천에 귀하신 분들의 투자, 동업 내지는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궁극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8-371-0763**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one stop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PEOPLE

개그맨 오지현 부부, '땡전 한 푼 없어도' 행복한 비결

채널A 다큐 <부부> '미녀, 야수를 만나다' 편 출연

개그맨 오지현(35)이 '땡전 한 푼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제 연애결혼 5년차인 오지현과 사회복지사 출신의 아내 박상미(33) 부부의 알콩달콩 결혼스토리가 10일 방송된 채널A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부부'에서 그려졌다.

'부부'는 주인공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와 대한민국 부부 100쌍의 적나라한 인터뷰가 교차하며 부부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펼쳐는 프로그램으로, 첫 회 '미녀, 야수를 만나다' 편에 오지현 부부가 등장했다.

KBS 공채 18기 출신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오지현. "안녕, 난 민이라고 해"라는 유행어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잘 나가던 그의 현재 은행 통장잔고는 제로다. 오지현은 앞선 녹화에서 "내 통장잔고는 0원이다. 그 때문에 여섯 살, 8개월된 두 딸을 데리고 돈 벌이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돈벌이란, 결혼식 사화다.

이어 그는 "(나는)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사회를 보고 아내는 축가를 부른다"며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행사가 요즘 유일한 수익이다"고 말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오지현 박상미 부부는 신실한 크리스천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 전에도 두 사람은 순결 서약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일까. 돈에 목매기보다 '삶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려는 듯 보인다. 실제로 부부는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일은 없었다고. 이들은 방송에서도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건 아니다"고 전해 감동을 안겼다.

어찌 보면 야수 같은 남편을 만나 고생한다는 소리 꽤나 들을 법하지만, 아내 박상미는 그런 내색 하나 없다. 오히려 "내조는 아내의 당연한 의무고, 남자는 집안에서 기 못 퍼면 큰일을 못한다"고까지 말할 정도니 말 다했다. 물론 생활비가 없다 해서 아내 박상미가 바가지를 긁는 법도 없다.

이런 그녀의 강력하면서도 절대적인 내조 덕에, 오지현은 비록 결혼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금 일적인 면에서 1년째 슬럼프를 겪고 있긴 해도 일을 찾아 안달복달하지는 않는다. 삶의 질에 있어선 어쩌면 그의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천국'일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오지현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내가 정말 훌륭하다", "오지현 박상미 부부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한나 기자



개그맨 오지현(35)이 땡전 한 푼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제 연애결혼 5년차인 오지현과 사회복지사 출신의 미인 아내 박상미(33) 부부의 알콩달콩 결혼스토리가 10일 채널A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부부'에서 그려졌다

릭 워렌 목사 사칭 'SNS 사기' 잇따라

가짜 계정 이용해 후원금 모금

릭 워렌 목사(새들백교회)는 지난 9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아들의 사망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던 '가짜 리 워렌 페이스북' 200여개 가운데 179개가 사라졌다.

아직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서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같은 소식을 알려주고, 실제 페이지와 연결시켜 준 여러분들의 도움에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복 주시길"이라고 올렸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페이스북에서는 이용자



릭 워렌 목사

가운데 13,500여명이 '좋아요'를 클릭했고, 트위터에서는 166번 리트윗됐다.

막내 아들의 자살 소식이 전해진 지난 4월, 워렌 목사 가족은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청원을 돌리기도 했다. 이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가족들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 달라고 했다.

이후 워렌 목사는 '정신 건강을 위한 매튜 워렌 재단(The Matthew Warren Fund for Mental Health)'을 설립해 온라인 후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가짜 SNS 계정을 통해, 새롭게 설립된 이 비영리단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사기 행각이 벌어지기도 했다.

라이트웨이 리서치의 에드 스테처(Ed Stetzer)는 지난 8일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기 행각에 대해 "합법적으로 보이는 가짜 SNS 계정을 이용해, 후원 사이트를 만들고 후원금을 모금해 왔다.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유명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사칭한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두문불출했던 워렌 목사와 그의 아내 카이 사모는 2주 전부터 다시 주일예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에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6주간 진행되는 시리즈 설교의 첫번째 말씀을 전했다.

강혜진 기자

메디칼럼

유전자와 영양소, 그리고 질병

인체의 생리대사에 필요한 7가지 중요한 생리물질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효소, 호르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3대 에너지원 영양소이며, 비타민과 미네랄은 효소의 도우미 역할을 하며, 효소는 물질의 변환을 촉매하고, 호르몬은 생리대사에 신호를 주는 물질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생화학 물질은 핵산인데, 이는 유전자를 이루는 물질이며, 유전자는 효소 생성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변이는 효소 변이로 이어져 병의 소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최소변이인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단일 염기변이)와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에 대해 유도화학 합성된 현대

양방약과는 달리 과일, 야채, 생약 등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이렇게 약으로 쓰이는 영양소를 영양약(neutraceutical)이라 합니다. 또 이러한 영양소와 유전자와의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을 영양유전학(nutrigenomics)이라 합니다.

또한 어떤 약은 어떤 사람에게에는 잘 듣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에는 잘 듣지 않기도 하는데 이

에 대해 약과 유전자와의 작용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약리유전학(pharmacogenomics)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의 유전자를 전부 분석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왔으므로 개인의 유전자에 따라 맞는 음식을 먹는 건강시대와 맞는 치료약을 쓰는 맞춤 치료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나병원 정평수 원장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정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8월 스페셜

좋은이자율! 최상의 서비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곳!

2013 ACCENT GS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7,340 (STK #115126)
PH HYUNDAI D/C \$889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375 (STK #702299)



2013 EQUUS SIGNATURE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0,170 (STK # 069499)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000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에드윈 김
626.610.6570

로버트 정
323.839.7074

스티브 장
626.513.4005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